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은 불국사에 있는 하대 신라 시기의 석탑이다. 국보 제 20호이며, 불국사 대웅전 앞에 석가탑과 함께 서 있다.

중심에 탑심으로서 거석을 설치하고, 4구석에 석주를 배치한 초층, 그 위에 옥개석을 얹고 사방을 高欄으로 에워쌌으며, 상층으로 가면서 팔각 3층의 지석, 탑신, 연화로 이어진다. 최상층은 팔각의 옥개석으로 상륜부를 세웠다. 변화가 많고 복잡한 장식이 전체의 균형을 이루어 아름다운 신라석조 미술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어떤 다른 석탑과도 닮지 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석탑으로, 목조건물의 복잡한 구조를 화강석을 이용해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경덕왕 10년(751년) 김대성의 발원으로 불국사가 증건될 때 함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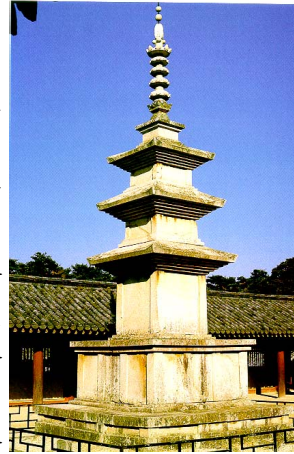
1920년대 일본인들이 탑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사리와 사리장치 등의 유물, 그리고 기단부의 네 마리 사자상 가운데 세 마리가 사라졌으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찾을 길이 없어졌다.

현재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 문양이 새겨져 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과거·현재·미래의 부처가 사는 정토(淨土), 즉 이상향을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혜공왕 10년(774) 12월 그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짓지 못하여, 그 후 나라에서 완성한 후 나라의 복을 비는 절로 삼게 되었다.

불국사삼층석탑과 불국사다보탑(국보 제20호)은 절의 대웅전 앞 뜰 동서쪽에 각각 세워져 있는데, 서쪽탑이 삼층석탑이다. 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여래상주설법탑(釋迦如來常住設法塔)’으로, ‘석가탑’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多寶佛)이 옆에서 옹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감은사지삼층석탑(국보 제112호)과 고선사지삼층석탑(국보 제38호)의 양식을 이어받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훌륭한 작품이다. 탑 전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2층의 기단이 튼실하게 짜여 있으며, 목조건축을 본따서 위·아래층 기단의 모서리마다 돌을 깎아 기둥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 탑신에도 그러한 기둥을 새겼으며, 지붕돌의 모서리들은 모두 치켜올려져 있어서 탑 전체에 경쾌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더한다. 탑의





머리장식(상륜부)은 파손되어 1973년 남원 실상사삼층석탑(보물 제37호)의 머리장식을 본따서 복원하였다. 탑 주위로 둘러놓은 주춧돌 모양의 돌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는데, 이를 부처님의 사리를 두는 깨끗한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탑이 건립된 시기는 불국사가 창건된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으로 추측되며, 그 후 원래 모습대로 잘 보존되었으나, 안타깝게도 1966년 9월 도굴꾼들에 의해 탑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다. 그해 12월 탑을 완전하게 복원하면서 2층 탑신의 몸돌 앞면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던 사각형의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가지 사리용기들과 유물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국보 제126호)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로 닥나무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탑은 ‘무영탑(無影塔: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여기에는 석가탑을 지은 백제의 석공(石工) 아사달을 찾아 신라의 서울 서라벌에 온 아사녀가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져야 했던 슬픈 전설이 서려 있다.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지터에 있으며, 국보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목탑을 그대로 돌로 옮겨 만든 느낌을 주는 한국 최고최대(最古最大)의 이 탑은 현재 6층(높이 14.24m)까지만 남아 있으나 7층 이상의 탑으로 추정되며, 반쯤 무너져 버린 것을 식민지시기에 일본인들이 불품없이 시멘트로 보수를 하여 반쪽탑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 탑의 각부 구조를 살펴보면 기단부는 목탑에서와 같이 단층이고 낮다. 초층옥신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중앙의 1칸에는 사방에 문호(門戶)가 있어 내부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탑 내부 중앙에 거대한 방형석주를 세워 목탑과 같이 찰주로 삼았다. 각면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이른바 엔타시스(entasis) 기법을 사용한 장방형 석주를 세우고, 그 위에 목조건물의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설치하였으며 두공양식을 모방한 3단의 받침돌이 옥개석을 받치고 있어 고식건물의 수법을 보인다.

2층 이상의 옥신은 1층보다 훨씬 낮아졌으나, 각 층 높이의 차이는 심하지 않으며 가구 수법이 간략화되었다. 옥개석은 얇고 넓으며 네 귀퉁이의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이 보인다. 2층 이상의 옥개석은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줄어들었을 뿐, 두공양식의 3단 옥개 받침이나 전각의 반전 등 각부는 초층의 구성과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의 건립 연대에 관하여는 과거 일본 학자들이 통일신라시대의 건조물로 비정한 바 있고, 한국학자들도 백제의 공주도읍기인 동성왕대 (479~500년)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이 문제는 백제의 대찰인 미륵사가 세워지게 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고찰되어야 할 것인데, 「삼국유사」의 권2 무왕조의 내용에 주목해 보면 이 석탑은 백제 말기인 무왕대 (600~640년)의 건립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미륵사지 석탑은 세기 초반에 건조된 탑으로 목조 가구의 세부까지도 충실하게 모방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석탑을 이룩하였으니 이 석탑의 양식이야말로 목탑이 유행하던 백제에서 석탑이 발생하는 과정을 뚜렷하게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석탑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보고 한국 석탑의 시원(始源)을 여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이 탑이 석조물이지만 보는 순간 그 양식이 목탑과 비슷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탑은 선행되었던 목탑의 각부 양식을 목재 대신 석재로 바꾸어서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석탑 발생의 시원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東方石塔之最'라 평가받는 이 탑은 계속된 발굴 결과 동쪽에 이와 똑같은 규모의 탑이 있었으며, 두 석탑 사이에도 목탑이 하나 더 있어 미륵사에는 원래 3개의 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동쪽 탑지에는 서탑을 흉내내어 현대 기술로 만든 불품없는(?) 탑이 우뚝 솟아 미륵사지탑을 보고자 오는 이들을 내려다 보고 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으며, 국보 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시대에 세워진 탑으로, 백제의 석탑이 목조건축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석탑의 발전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탑이다.

이 석탑의 초층탑신 4면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트린 후에 새겨놓은 기공문(紀功文)을 보고,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부르면서 백제가 멸망하던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다가, 식민지시기에 이 절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기와에서 '정림사(定林寺)'라는 명이 양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절의 이름이 '정림사'이며 탑과 기공문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탑은 소정방이 기공문을 써 넣기 전에 건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탑은 목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미륵사지탑보다 더욱 정돈되고 세련된 수법으로 창의성을 보이고 있다. 낮은 단층기단(1980년대에 절터를 발굴한 결과 기단 형식이 2층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에 1간 4면의 탑신을 구성하고 탑신에는 4



개의 우주가 있으며, 각면 양 우주 사이에 2매의 벽판석을 세워 8매석으로 구성하고 그 위에 판석을 얹고 옥개석을 받고 있다. 우주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배흘림(엔타시스) 수법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얇고 넓으며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옥개받침에서 모를 없애 목조건축물의 두공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상륜부는 5층 옥개석 위에 노반석이 남아 있을 뿐 다른 부재는 없으며 찰주공이 노반을 뚫고 옥개석까지 이르고 있다. 작은 석재를 많이 사용하여 만들어 이 탑이 목조건축을 모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체감률이 알맞고 안정감이 있는 격조높은 탑(높이 약 8.3m)이라 할 수 있다.